

미래차 시대,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성욱
스마트카 'TALK'

정부는 최근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이동수단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산업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정책의 방향보다 속도와 실행 순서에 있다. 미래차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강조하면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를 감당할 생산 기반, 부품 생태계, 인증 체계, 정비 인프라, 전문인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술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산업 전환의 실행력이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제동·조향장치, 차체 구조, 고전압 안전성, 사고 대응, 정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실증사업과 상용화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 실패 시 책임과 검증 체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차 전환 역시 보급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배터리 안전성, 충전 인프라, 화재 대응, 고전압 정비 인력, 폐배터리 관리, 부품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보급 대수 중심 정책은 정비 불균형과 소비자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미래차 정책은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부품업체, 정비업체, 시험·인증기관 등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분야로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어렵고, 정비업체 역시 고전압 안전교육과 진단 장비가 없으면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전환 비용과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자동차 안전 인증 체계의 고도화도 시급하다. 기존 자기인증 제도만으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복합 기술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은 도로환경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고, 전기차는 배터리 충돌 안전성과 열폭주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갖는다. 따라서 실증 확대보다 시험·평가·인증 기준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모빌리티 정책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설계·생

산·유지하는 산업이라는 본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차량의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정비성, 인증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다. 또한 국제 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상용화보다 안전성 검증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로 완성차 중심 지원을 넘어 부품업체와 정비업체, 시험·인증기관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급 대수나 실증사업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성, 지속가능성, 산업 전환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기본인 안전, 생산 기반, 인증, 정비, 부품 생태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미래차 경쟁력은 기술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고,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산업 전체가 함께 지속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확보될 것이다.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폴더블의 시간은 이제부터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삼성전자가 하반기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초콜릿을 부러뜨리고 사진을 찍는 짧은 장면에는 '새로운 폴더블'과 '다인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녹아 있었다. 삼성전자가 7세대 동안 다져온 폴더블 전략을 한 단계 확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내놓은 이후 폴드와 플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경쟁사들이 시장성을 지켜보는 동안 삼성은 접히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언팩은 예년과 분위기가 다르다. 내년 하반기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가정사실화되면서 폴더블 시장의 경

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애플이 출시 첫해부터 글로벌 폴더블 시장 점유율 20% 후반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삼성이 사실상 독주했던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폴더블 시장은 단순히 판매량 경쟁을 넘어 AI 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가르는 무대로 바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애플의 참전이 오히려 폴더블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 스마트폰은 생산량이 늘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폴더블은 반대다. AI 기반 멀티태스킹 수요가 커지면서 대화면 북형 폴더블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초프리미엄 제품 비중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서 삼성이 이번 티저를 통해

강조한 '새로운 선택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폴드와 플립만으로는 달라진 시장의 수요를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리폴드 등 새로운 폼팩터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애플의 진입이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OLED 패널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품 산업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완성품에서는 경쟁자지만, 공급망에서는 협력하는 스마트폰 산업 특유의 구조가 다시 한번 펼쳐질 전망이다.

결국 소비자는 새로운 형태보다 새로운 경험에 지갑을 연다. AI 시대에도 폴더블이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용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완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수익을 흥청망청 쓰지마세요. 60년생 나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세요. 72년생 확실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84년생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49년생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친구를 너무 믿지 마세요. 85년생 굳센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50년생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62년생 늦은 저녁 외출을 삼가세요. 74년생 집에 있는 것이 낫한 하루입니다. 86년생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51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63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75년생 남쪽이 좋은 기운을 주는 길방입니다. 87년생 타인의 실수로 인하여 당신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52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먼 친척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76년생 주변의 도움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항상 베푸는 자세로 일관하세요.



53년생 당장의 금전적 손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65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77년생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89년생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54년생 하는 일마다 실속이 따르게 됩니다. 66년생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78년생 뜻밖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90년생 전화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55년생 저녁에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세요. 67년생 잠시 쉬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79년생 이성과 마음을 부드럽게 화합해야 합니다. 91년생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56년생 주위사람의 조언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68년생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과 상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80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이 생깁니다. 92년생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57년생 생활의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69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를 용서해주세요. 81년생 모든공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93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8년생 부부사이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70년생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면 좋습니다.



59년생 반드시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어설픈 감정은 후회를 부릅니다. 83년생 가볍거나 사소한 장난도 조심해야 합니다. 95년생 남의 흉을 보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타초경사, 숨은 위험 피하기

타초경사(打草驚蛇)는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가벼운 자극을 주어 숨어 있는 적이 드러나게 하거나,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탐색의 기술로 활용한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온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풀을 건드려서 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 병법 36계 중 하나인 타초경사는 앞길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영리한 지팡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다 보면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다.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고, 추진하려는 일이 과연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전략은 안개를 슬쩍 걷어내는 역할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기보다 먼저 상황의 흐름과 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인생을 걸곤 한다.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작은 돌을 먼저 던져본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거나, 이직하기 전 동종 업계 사람들과 가벼운 차한 잔을 나누며 흐름을 살펴본다. 이런 것이 현대인의 타초경사다.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깨워 직접 확인하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남달리 행동이 앞서는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주에 식상이나 겁재가 강한 경우가 많다. 승부욕이 대단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일을 추진할 때는 좋은 성과를 끌어내지만, 한편으로는 앞뒤를 잘 살피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이유도 모른 채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 창업, 투자,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고 뱀이 나오면 그에 알맞은 대비책을 미리 세우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1 | 6 | 2 | 9 | 9 | 8 | 7 | 2 |
| 2 | 8 | 9 | 6 | 7 | 1 | 9 | 8 |
| 9 | 1 | 6 | 7 | 8 | 2 | 9 | 1 |
| 7 | 8 | 1 | 1 | 8 | 9 | 6 | 9 |
| 8 | 7 | 2 | 9 | 6 | 8 | 1 | |
| 9 | 7 | 9 | 8 | 2 | 1 | 1 | 8 |
| 8 | 9 | 1 | 1 | 6 | 7 | 2 | 9 |
| 1 | 8 | 2 | 9 | 6 | 7 | 9 | 1 |
| 8 | 9 | 1 | 9 | 6 | 7 | 9 | 1 |
| 6 | 9 | 1 | 9 | 8 | 2 | 8 | 7 |

| | | | | | | | |
|---|---|---|---|---|---|---|---|
| 2 | | | 8 | | | | 3 |
| | 8 | | | | | | 6 |
| | | 3 | 6 | 7 | 5 | 2 | |
| | | 9 | 8 | | 4 | 7 | |
| 5 | | 7 | | | | 8 | 9 |
| | | 8 | 7 | | 9 | 5 | |
| | | 1 | 4 | 2 | 7 | 6 | |
| 7 | | | | | | | 5 |
| 8 | | | 9 | | | | 7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44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8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